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전은주³⁾, 노영미⁴⁾, 유순미³⁾, 오수연³⁾, 박금숙^{1,2)}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¹⁾, 원광대학교 천연물 발효연구소²⁾, 간호사³⁾, 보건교사⁴⁾

Perceived image of nurses on major and non-major students.

³⁾Eun-Ju Jeon, ⁴⁾Young-Mi Noh, ³⁾Soon-Mi Ryou, ³⁾Su-Yeon Oh, ²⁾Kum-Suk Park

¹⁾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²⁾ Laboratory for natural substance fermentation, Wonkwang University

³⁾ Registered Nurse

⁴⁾ Nursing Teacher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ceived image of nurses on major and non-major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120 nursing school students and 120 other university students in J province. The data was collected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test, ANOVA were performed by SPSS/PC 20.0. **Results:** The score for image of nurses was as follows. special image(3.86±0.51), traditional image(3.71±0.53), individual image(3.53±0.85), social image(3.43±0.58), and grand mean(3.66±0.48). Perceived image of nurses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udents of a major and non-major(t=6.390, p<.001).

Conclusion: It is needed to monitoring of media for the improvement the perceived image of nurses and also nurses have to try to make an individual role model.

Key words: Perceived image of nurses, Major, Non-majo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의료 소비자들은 대중매체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의학 정보와 의학 지식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의 의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대상자들의 질 좋은 간호에 대한 연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간호사들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Kim, 2004).

현대 간호의 초점 또한 질병중심 간호에서 인간 중심 간호로 바뀌면서 대상자를 이해하고 신

체적, 정신적, 심리적 요구를 근거로 포괄적인 전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간호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간호사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과 회복을 돕고, 환자 치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병원조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박성애 등, 1992). 그러나 이러한 간호사들의 인식과는 달리 과거의 많은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간호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변화하는 간호의 현실과 역할 및 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간호사들을 보는 시각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은 등, 2013).

대중매체는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역할, 백의 천사 등의 여성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최남희, 이남희, 1998)로 묘사하고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간호사들의 자존감 저하와 직무 만족도 감소로 인해 이직 의도와 간호사 부족 현상을 유발(문

©교신저자

성명: Park, Keum Sook, 82-63-840-1304

514 Iksan-daero, Iksan, Jeonbuk, 570-750, Korea,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14

전화번호: 063 840 1304

팩스번호: 82-63-840-1319

E-mail : pks8760@wu.ac.kr

영입 등, 1998)하고 있어 간호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제시와 향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의 개개인이 갖는 이미지는 간호집단의 간호 이미지로 대두되고, 특히 남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념과 태도 지각의 방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간호전문직 차원에서 볼 때 이미지 파악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유승엽, 2014).

즉,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간호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가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간호와 간호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하는 것이 간호 전문직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김복양 등, 1996, 김정은 등, 2013) 이에 따른 이미지 연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의료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호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간호 전문직의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Kim,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상자인 일반 대학생과 간호 대학생이 지각하는 이미지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간호전문직의 발전과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간호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적 방향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간호사의 모습을 재조명 해보고 멀티미디어적 정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올바른 간호사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 연구는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 1)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파악한다.
- 3)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를 비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를 설문지를 통해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 120명과 일반대 학생 120명, 총 24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 표집은 전북 익산 소재 W보건대 간호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 학년 학생들과 전북에 소재하는 일반대 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이다.

3. 연구도구

간호사 이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사 이미지 도구는 송인자(1993), 이복희 등(1993), 이돈순(1995)의 도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27문항으로 이루어진 양일심(1998)의 도구이다.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40$ 이었고, 본 연구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26$ 이었으며 전통적 이미지(0.882), 사회적 이미지(0.788), 전문적 이미지(0.799), 개인적 이미지(0.791)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 되어있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그렇다를 5점, 그렇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부정 문항의 3항목은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역환산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전북소재 대학교 간호대 학생들과 전북소재에 여러 대학교 일반대 학생들을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여 배부 당일 회수하였다.

기간은 2015년 9월 4일부터 9월13일까지 10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설문지는 자가보고식으로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에게 각각 120부(총 240부)를 배부한 후 모두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하여 코딩한 후 SPSS WIN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2) 대상자의 문항별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값, 표준편차, 빈도와 퍼센트를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간호대 학생은 여자가 86.7%, 남자가 13.3% 이고, 일반대 학생은 여자가 51.7%, 남자가 48.3% 였다.

두 집단 모두 성격은 긍정적이라 대답하였으며 미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입원 경험의 경우 간호대 학생이 43.3%로 일반대 학생의 55.8%보다 낮게 나타났고, 종교는 간호대 학생(55.0%)과 일반대 학생(66.7%) 모두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가족 중에 간호사가 있는 비율은 간호대 학생(42.5%)과 일반대 학생(46.7%) 모두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두 집단 모두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접한 경우가 많았으며, 간호학에 대한 생각으로는 간호대 학생 95.0%와 일반대 학생 94.2%가 긍정적이라 대답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호대 학생(30.0%)과 일반대 학생(43.3%) 모두 입원과 병원 방문이라 대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간호대 학생 23.3%와 일반대 학생 33.3%가 대중매체와 서적이라 대답하였으며,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한 간접 경험은 간호대 학생(11.7%)과 일반대 학생(1.7%)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p=.998), 성격(p=.696), 입원경험(p=.053),

결혼유무(p=.651), 종교(p=.064), 가족 중에 간호사 유무(p=.516), 간호학에 대한 생각(p=.776)은 유의미하지 않아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p=.000), 대중매체(p=.001), 이미지 형성(p=.000)은 유의미하게 나와 세 항목은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참조>

2.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사 이미지

간호대 학생이 생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점수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3.84로 일반대 학생이 생각하는 3.47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6.390, P=.001)

하부 항목으로 전통적 이미지는 간호대 학생이

3.89점으로 일반대 학생 3.55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사회적 이미지 또한 간호대 학생이 3.67점으로 일반대 학생의 3.20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며 전문적 이미지도 간호대 학생 4.07점으로 일반대 학생 3.65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이미지는 간호대 학생(3.60점)이나 일반대 학생(3.46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참조>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차이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간호대 학생은 남녀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t=3.224, p=.002)를 보였지만, 일반대 학생은 유의한 차이(t=1.158, p=.249)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성격의 경우 간호대 학생은 긍정과 부정에 따라 유의한 차이(t=2.197, p=.030)를 보였고, 일반대 학생은 유의한 차이(t=1.150, p=.253)를 보이지 않았다. 입원경험 유무에 따라 간호대 학생은 유의한

차이(t=2.483, p=.014)를 보였지만, 일반대 학생은 유의한 차이(t=-.491, p=.624)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간호학에 대한 생각은 간호대 학생(t=2.826, p=.006)과 일반대 학생(t=3.822, p<.001)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참조>

<Table 1.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의 일반적 특성>

| 특성 | 범주 (categories) | 간호대 학생 (n=120) | 일반대 학생 (n=120) | Total (n=240) | (p) |
|-----------|--------------------|-------------------|-------------------|------------------|--------------|
| | | N(%) | N(%) | N(%) | |
| 성별 | 남 | 16(13.3) | 58(48.3) | 74(30.8) | .34464(.000) |
| | 여 | 104(86.7) | 62(51.7) | 166(69.2) | |
| 학년 | 1학년 | 30(25.0) | 29(24.2) | 59(24.6) | .033(.998) |
| | 2학년 | 30(25.0) | 31(25.8) | 61(25.4) | |
| | 3학년 | 30(25.0) | 30(25.0) | 60(25.0) | |
| | 4학년 | 30(25.0) | 30(25.0) | 60(25.0) | |
| 성격 | 긍정적 | 106(88.3) | 104(86.7) | 210(87.5) | .152(.696) |
| | 부정적 | 14(11.7) | 16(13.3) | 30(12.5) | |
| 입원 경험 | 있다 | 52(43.3) | 67(55.8) | 119(49.6) | 3.750(.053) |
| | 없다 | 68(56.7) | 53(44.2) | 121(50.4) | |
| 결혼 유무 | 미혼 | 117(97.5) | 118(98.3) | 235(97.9) | .204(.651) |
| | 기혼 | 3(2.5) | 2(1.7) | 5(2.1) | |
| 종교 | 있다 | 66(55.0) | 80(66.7) | 146(60.8) | 3.428(.064) |
| | 없다 | 54(45.0) | 40(33.3) | 94(39.2) | |
| 가족 간호사 | 있다 | 51(42.5) | 56(46.7) | 107(44.6) | .422(.516) |
| | 없다 | 69(57.5) | 64(53.3) | 133(55.4) | |
| 대중 매체 | 있다 | 117(97.5) | 102(85.0) | 219(91.3) | 11.742(.001) |
| | 없다 | 3(2.5) | 18(15.0) | 21(8.8) | |
| 생각 | 긍정적 | 114(95.0) | 113(94.2) | 227(94.6) | .081(.776) |
| | 부정적 | 6(5.0) | 7(5.8) | 13(5.4) | |
| 이미지형 성 | 대중매체 및 서적 | 28(23.3) | 40(33.3) | 68(28.3) | 25.610(.000) |
| | 입원 & 병원방문 | 36(30.0) | 52(43.3) | 88(36.7) | |
| | 가족& 친척간호사 | 21(17.5) | 22(18.3) | 43(17.9) | |
| | 인상 실습 | 21(17.5) | 4(3.3) | 25(10.4) | |
| | 이야기(간접경험) | 14(11.7) | 2(1.7) | 16(6.7) | |

<Table 2.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사 이미지>

| 간호사 이미지 | 간호대 학생 (n=120) | 일반대 학생 (n=120) | Total (n=240) | t(p) |
|---------|-------------------|-------------------|------------------|--------------|
| | M±SD | M±SD | M±SD | |
| 간호사 이미지 | 3.84±0.43 | 3.47±0.46 | 3.66±0.48 | 6.390(<.001) |
| 전통적 이미지 | 3.89±0.47 | 3.55±0.53 | 3.71±0.53 | 5.298(<.001) |
| 사회적 이미지 | 3.67±0.53 | 3.20±0.54 | 3.43±0.58 | 6.584(<.001) |
| 전문적 이미지 | 4.07±0.46 | 3.65±0.47 | 3.86±0.51 | 7.028(<.001) |
| 개인적 이미지 | 3.60±0.82 | 3.46±0.87 | 3.53±0.85 | 1.244(.215) |

<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차이>

| | | 간호사 이미지 | | | |
|------------|-----------|-----------|-------------|-----------|--------------|
| | | 간호대 학생 | | 일반대 학생 | |
| | | M±SD | t(P)or F(P) | M±SD | t(P)or F(P) |
| 성별 | 남 | 4.15±0.26 | 3.224(.002) | 3.52±0.45 | 1.158(.249) |
| | 여 | 3.79±0.43 | | 3.43±0.47 | |
| 학년 | 1학년 | 3.90±0.50 | .292(.831) | 3.50±0.36 | .126(.944) |
| | 2학년 | 3.80±0.30 | | 3.43±0.50 | |
| | 3학년 | 3.82±0.41 | | 3.49±0.49 | |
| | 4학년 | 3.80±0.49 | | 3.47±0.49 | |
| 성격 | 긍정 | 3.87±0.40 | 2.197(.030) | 3.49±0.47 | 1.150(.253) |
| | 부정 | 3.60±0.54 | | 3.35±0.40 | |
| 입원 | 유 | 3.95±0.44 | 2.483(.014) | 3.45±0.45 | -.491(.624) |
| | 무 | 3.75±0.40 | | 3.50±0.47 | |
| 결혼 | 미혼 | 3.84±0.43 | .652(.516) | 3.47±.45 | -.545(.587) |
| | 기혼 | 3.68±0.32 | | 3.65±1.23 | |
| 종교 | 유 | 3.84±0.42 | -.084(.933) | 3.52±0.43 | 1.475(.143) |
| | 무 | 3.84±0.45 | | 3.39±0.50 | |
| 가족 간호사 | 유 | 3.88±0.39 | .865(.389) | 3.56±0.46 | 1.925(.057) |
| | 무 | 3.80±0.45 | | 3.40±0.45 | |
| 대중 매체 | 유 | 3.85±0.42 | 1.521(.131) | 3.48±0.46 | .483(.630) |
| | 무 | 3.47±0.65 | | 3.42±0.48 | |
| 간호사에 대한 생각 | 긍정 | 3.86±0.41 | 2.826(.006) | 3.51±0.44 | 3.822(<.001) |
| | 부정 | 3.37±0.50 | | 2.86±0.43 | |
| 이미지 형성 | 대중매체 및 서적 | 3.82±0.47 | .587(.673) | 3.42±0.35 | .552(.698) |
| | 입원&병원방문 | 3.89±0.42 | | 3.47±0.52 | |
| | 가족&친척간호사 | 3.86±0.41 | | 3.52±0.52 | |
| | 임상 실습 | 3.72±0.43 | | 3.60±0.11 | |
| | 이야기(간접경험) | 3.84±0.43 | | 3.84±0.08 | |

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간호사의 모습을 재조명 해보고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올바른 간호사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 27개 문항에 대하여 간호대 학생이 일반대 학생보다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간호사 이미지 총점의 평균은 간호대 학생이 3.84점으로 일반대 학생의 3.47점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는 김혜경 외(2002) 일반인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 이미지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3.29점보다 높은 것이며 유승엽(2014)의 간호대 전공과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점수 3.13점에 비해서도 높아 간호대 학생이 다른 대상자보다 간호사에 대해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실제적으로 간호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 간호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이미지를 전통적, 사회적, 전문적, 개인적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본 결과에서도, 간호대 학생이 일반대 학생보다 모든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도구로 선행된 양일심(1998)의 간호사 이미지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서는 전문적 이미지가 평균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전통적 이미지는 3.27점, 개인적 이미지는 3.20점, 사회적 이미지는 2.95점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일반대 학생의 경우도 전문적 이미지는 3.65점, 전통적 이미지는 3.55점, 개인적 이미지는 3.46점, 사회적 이미지는 3.20점 순서로 나와 양일심(1998)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간호대 학생은 전문적 이미지는 4.07점, 전통적 이미지는 3.84점, 사회적 이미지는 3.67점, 개인적 이미지는 3.60점의 순서로 사회적 이미지와 개인적 이미지의 순서에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은 전통적 이미지($t=5.298, p < .001$), 사회적 이미지($t=6.584, p < .001$), 전문적 이미지($t=7.028,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개인적 이미지($t=1.244, p = .21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결자와 송미령(1997)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 학생들은 비간호 학생들에 비해 분명한 간호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결과도 일반대 학생보다 간호대 학생이 전반적으로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 차이를 보면 간호대 학생의 경우 남녀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t=3.224, p=.002$)를 보인 반면 일반대 학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158, p=.249$).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간호대 학생의 경우를 보면 남자가 0.26점으로 여자 0.43보다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는 남자 간호대 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한 이시라(2011)의 연구에서 높은 이미지 점수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과거에는 간호사들이 주로 여성이었지만 사회 인식의 변화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 가치관의 확립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남학생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학년별로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간호대 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라 실습 유무가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습 여부가 간호사 이미지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절자와 송미령(1997)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낮아서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군일수록 간호사의 이미지가 좋고 학년이 높아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군일수록 간호사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실습 기간이 길어졌을 때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이 바라 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상실습은 많은 환자에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간호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간호 학생이 보유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김세령 등. 2015). 따라서 일반대 학생뿐만 아니라 간호대 학생에게 있어서도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 이미지는 중요하며 병원에서 간호사의 태도와 역할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성격의 경우 일반대 학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1.150, p=.253$) 간호대 학생은 유의한 차이($t=2.197, p=.030$)를 보였다. 즉 간호대 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성격일수록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입원 경험 유·무에 따라서 간호대 학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t=2.483, p=.014$) 일반대 학생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491, p=.624$). 이는 양선희 등(1997)의 연구에서 입원 경험의 유무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일반대 학생은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간호대 학생은 다른 결과를 보인다.

자신의 입원 경험이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더 긍정적이어서 입원 경험이 있는 군은 부정적인 간호관을 갖고 있다는 조결자와 송미령(1997)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일반대 학생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간호대 학생의 경우 다른 값을 보인다. 그러나 심미정의(1998)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인지 형성은 본인 및 가족의 입원 경험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논문과 강영실의(2001)의 연구 결과 환자와 보호자가 전체적으로 일반인보다 간호사 이미지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논문에서는 일반대 학생의 경우 상반된 견해를 보이지만 간호대 학생의 경우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간호대 학생의 경우 자신의 전공 분야가 간호학이기 때문에 입원기간 동안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으면서 일반대 학생보다는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중 결혼을 보면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간호대: $t=.652, p=.516$, 일반대: $t=-.545, p=.587$) 즉, 두 그룹 모두 결혼의 유무가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종교의 경우도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간호대: $t=-.084, p=.933$, 일반대: $t=1.475, p=.143$) 이는 종교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숙(1989)의 간호학생의 간호상에 대한 조사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 유무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 모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강혜영 등(2001)의 교사, 방송인, 법무 및 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지역의 간호사 이미지 조사연구와 강영실(2001)의 입원 경험 전후의 간호사 이미지 연구들에서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가 있는 군이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의 간호사 유무가 간호사

이미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의 하나선(1983), 김은숙(1989)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에 간호사가 있으므로 간호의 전문적 지식과 전반적인 의료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간호사 직업의 높은 이직률과 스트레스, 정신 & 육체적 피로 등을 옆에서 겪으면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망스럽게 변했거나, 가족 구성원 중의 간호사 유무가 본인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에 대한 생각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간호대: $t=2.826, p=.006$, 일반대: $t=3.822, p<.001$) 두 그룹 모두 간호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이 간호사 이미지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 학생의 경우 자신들이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바탕으로 간호학을 선택함으로써 미래의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사료되고, 일반대 학생의 경우 간호학은 봉사와 희생정신, 전문성이 필요한 학문이므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대상자가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호대 학생은 입원과 병원의 방문이었고, 그 다음으로 가족과 친지 중의 간호사 유무, 이야기를 통한 간접경험, 대중매체 및 서적, 임상실습 중에 만난 간호사 순이었다. 그리고 일반대 학생의 경우 이야기를 통한 간접경험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임상실습 중에 만난 간호사, 가족과 친지 중의 간호사 유무, 입원과 병원의 방문, 대중매체 및 서적 순이었다. 이는 양일심(1998)의 연구에서 대중매체의 간호사 관련 보도를 경험한 대상자가 더 부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의 전문성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인식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중매체에서의 간호사 모습은 의사의 지시를 받거나, 전문적이기 보단 여성적이고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하는 모습이 더 부각되어지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사 이미지 형성이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해 현재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고, 임상에서 근무

하고 있는 간호사들 또한 자신의 직업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임하며,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사의 역할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한 학교와 병원, 사회가 간호사의 긍정적 이미지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간호 교과 과정에도 제대로 된 간호사 역할을 교육하고 보여 주며, 간호의 본질을 올바르게 대중에게 알리고 왜곡된 간호사의 이미지를 바르게 심어 줄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하여 오늘날 간호사의 모습을 다시금 재조명해보고,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간호사라는 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한 '비교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이미지 총점의 평균은 간호대 학생이 3.84 점, 일반대 학생이 3.47 점으로 간호대 학생의 이미지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2. 간호사 이미지의 4개영역 차이는 전통적 이미지($t=5.298, p < .001$), 사회적 이미지($t=6.584, p < .001$), 전문적 이미지($t=7.028,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개인적 이미지($t=1.244, p < .21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간호대 학생은 남녀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t=3.224, p=.002$)를 보였지만, 일반대 학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158, p=.249$). 그리고 성격의 경우 간호대 학생은 긍정과 부정애 따라 유의한 차이($t=2.197, p=.030$)를 보였고, 일반대 학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150, p=.253$). 입원경험의 유무에 따라 간호대 학생은 유의한 차이($t=2.483, p=.014$)를 보였지만, 일반대 학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491, p=.624$). 그러나 간호학에 대한 생각은 간호대 학생($t=2.826, p=.006$)과 일반대 학생($t=3.822, p < .001$)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간호대 학생이 일반대 학생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과거 사용된 연구와 비교했을 때 영역별로 이미지의 인식정도가 유사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한정된 지역의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 학생을 편의 표집한 것으로, 전국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3. 간호의 대중적 이미지를 분석하여 간호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간호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 참고문헌

강영실. 간호 및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 경상대논문집, 37:20-22, 1998

강혜영, 김미선, 김정호, 김혜숙, 박미화, 박영주, 송남효, 이난희, 전효경. 일지역의 간호사 이미지 조사연구: 교사, 방송인, 법무 및 행정 공무원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간호과 학논집, 6(1), 109-124, 2001.

김복양, 김선희, 김옥순, 남영희, 이길자, 정복례. 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대한간호학회지, 5(4):631-648, 1996.

김세령, 김여진, 홍세화, 김정순. 병원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21(2), 148-155, 2015.

김정은, 정희정, 김한나, 손승윤, 안슬기, 김셋별. 최근 5년간 한국 의학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와 역할 수행에 대한 연구. 간호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10(2), 120-132, 2013.

- 김은숙. 간호학생의 간호상에 대한 조사연구;순천지역 3년제 대학과정을 중심으로. 순천간호전문대학, 203-238, 1989.
- 김혜경. 일반인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 이미지. 이화간호학회지, 35, 27-45, 2002
- 문영임, 임미림, 윤경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7(2):44-52, 1998.
- 박성애, 엄앵란, 정순영, 정면숙, 최경숙. 간호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Q방법론 적용.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6(1), 1992.
- 송인자. 간호이미지에 관한 의사,간호사,병원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 비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170:51-62, 1993.
- 양일심. 간호사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4(2):289-306. 1998
- 유승엽. 간호사 이미지 지각은 어떠한가? : 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비교.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2014
- 이돈순. 일반인이 인지한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이복희, 고정은, 전화윤.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대학생을 중심으로. 동남보전논문집, 1993.
- 이시라. 남자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 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조결자, 송미령. 간호학생의 간호관 형성과 변화양상. 간호행정학회지, 3(1):17-35, 1997.
- 최남희, 이남희. 간호의 독자성을 위한 철학적 고찰. 간호학회지, 18(1), 1998.
- 하나선. 간호학생의 간호상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내 4년제 대학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 Kim, S. Y.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es and patients, Daejeon University, Daejeon. 2004.